

서거석 교육감, 故 송경진 교사 유족 위로

“교원 보호 지원체계 마련” 약속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 표명

서거석 교육감이 18일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을 표하며 근정포장 및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교육청 감사 개시 통보 이후 발생한 고인의 사망에 대해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 서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송경진 교사는 2020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9년간 학생 교육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리고,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근정포장 전수식과 함께 공로패 전달식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고인의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2017년 당시에는 교육청 내에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심리적 지원 체계가 미흡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유족의 요청인



서거석 교육감이 18일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을 표하며 근정포장 및 공로패를 전달했다.

고인의 교감 특별승진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강해 교육부에 특별승진 승인을 촉구하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행정 조사 절차 등을 정비하겠다”면서 “교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자양중, 20~22일 기록물전시회

학교의 50년 역사 ‘한눈에’

사진 등 68종 선보여

군산자양중학교(교장 황인영)는 오는 20~22일 3일간 1층 중앙현관에서 50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자양중학교는 1971년 육구서중학교로 개교해 1999년 현재의 이름으로 교명을 변경해 총 1만1,08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기록물 전시회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군산자양중의 각종 행사 모습과 교육활동을 담은 사진첩과 육구서중학교 관련 각종 상패류 등 학교의 50여 년 역사에 담긴 기록물 총 68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군산자양중이 개교한 1971년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비롯해 체육대회와 새마을운동, 농촌 봉사활동 등 당시 시대상과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눈길을 끈다.

박기석 총동창회장은 “군산자양중학교 50년 역사를 후배들과 지역사회가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해 준 학교에 감사드리며, 더 큰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황인영 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학교의 과거를 돌아보고, 학교가 나아가 할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기록물 수집과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와 기록물을 공유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17일 오후 5시 학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별 헤는 밤’ 콘서트를 개최했다.

‘별 헤는 밤’... 전주대, 개교 60주년 기념 콘서트

윤형주·가스펠 보컬 그룹 ‘크룩스’ 등 출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7일 오후 5시 학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별 헤는 밤’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전주대의 지난 6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주대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준 지역 시민들을 초청해 진행됐다.

특히, 전설적인 포크 가수이자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던 윤형주 장르, 가스펠 보컬 그룹인 ‘크룩스(CRUX)’와 R&B 가수인 범키가 출연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콘서트에 참여한 지역 시민은 “이번 콘서트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선곡부터 콘서트 운영까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며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비종교인까지 고려한 콘서트에 마음의 감동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과 수퍼스타홀을 키우는 전주대학교의 이미지가 연관성을 봤다”며 “이번 콘서트에 초청해 준 전주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준 협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지역 사회 각 주체들이 전주대를 향해 보내준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주대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로컬벤처학부, 의약 데이터 표준화 포럼

전문인력 양성 협약도

도내 의약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협력 전개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는 최근 자유관에서 의약 데이터 표준화 포럼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약학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의약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약학 데이터 활용 확대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상호 전문적 경험과 자원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 △전북 지역에서의 의약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및 표준에 대한 연구 등 상호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전북 지역의 생명·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의 다양한 창업 역량을 기르고 있는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의 협력은 생명·바이오 분야 창업의 핵심이 되는 의약 데이터의 지역 내 활용 역량을 높여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김시열 교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로컬창업은 본질상 매우 다양한 분야가 대상이 된다”며 “이번 협약이 전북 지역에서의 생명·바이오 분야의 창업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는 로컬 자원 기반의 창업 및 경영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로컬비즈니스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의원에 내년도 본예산 설명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설명 나서... 학생의회 의견 정책·예산에 지속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학생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의원들에게 전북교육의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학생의회의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5년도 전북교육의 주요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2025년 예산안 규모 △2025년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전북학생의회 제안 정책사업 예산안을 교육감이 직접 설명하고, 학생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초·중등 학력신장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문체체 강화 △스마트친관 보급 △전북 에듀케어 지원 등 16개 사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북학생의회에서 제안한 대입 맞춤형 진학 상담 지원,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내 등하교 펜스 설치, 교사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학생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본예산 설명을 하고 있다.

및 학생 인권 존중 토론회, 시군별 일 반계고등학교 공동 입시 설명회 등도 안내했다.

오현서 학생의장은 “2025년도 예산 설명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단위학교에서의 학생 참여가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학생복지, 학력향상 등 더 나은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사대부고, 덕진구

취약계층에 연탄 기부

전북사대부고 학생 및 교직원들은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취약계층 세대에 연탄 1,000장을 기부하는 연탄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를 위해 학생자치회는 플리마켓과 어묵꼬치 판매 사업을 운영했다.

특히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연탄 1,000장의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탄을 나르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따스해졌다”면서 “학생회 행사를 통해 조금 한 비용으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음에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영근 교장은 “연탄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교육이며 아이들의 삶에 든든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사대부고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2010년 시작해 올해까지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장은성 기자

반려동물 산업 발전·학생들 전문성 강화 기여

전주대 반려동물산업학과

전북수의사회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학과장 이승욱)는 최근 전북수의사회(회장 이종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종환 회장과 이승욱 학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실무 경험을 위한 현장 실습 활동 지원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환 회장은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학과 학생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승욱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전주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는 학과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최근 전북수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전주대 반려동물산업학과가 반려동물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JST 공유대학, 초·중학생

대상 미래 수송 로봇 캠프

전북대학교는 지난 18일 전북 새만금(JST) 공유대학 일환으로 AI기술로 만나는 미래 수송 로봇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분부가 마련한 이번 캠프에는 초·중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기술로 만나는 미래 수송 로봇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카미봇 기초 코딩 교육 △코딩 실습 △이와 관련 팀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색다른 체험 기회를 가졌다.

이교우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분부장은 “앞으로도 전북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